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상 구현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기자회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월5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종단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결망을 짊어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전승관 건립불사 착수, 동방대학대학교 개교

인가, 복지법인 설립인가 등 성과에 이어 올유년 새해에도 태고종은 사회와 대중을 위한 참 불교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승단으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갈것다"고 말했다. 다음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힘있는 종단'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을 표방하셨는데요.

-태고종이 도달해야 할 지표(指標)라고 생각합니다. 인성회복을 위한 대각성법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중앙복지원 설립, 자원봉사단 구성, 인권·환경단체의 구성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태고종의 변화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달라지기 위해 청산해야 할 과제는?

-종도들 사이에 '종단이 변하고 있구나' '나도 동참하겠다'는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승교화종단인 태고종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회 깊숙이 들어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내야 합니다. 그레아 종단의 위상도 확립되고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태고종 전가족의 포교사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구 대처싸움의 잔재로 그동안 스님의 권속들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태고종에는 2900여 사람과 7000여 스님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5만~10만여명의 스님

권속부터 교육을 통해 포교사회 한 뒤 조직화 작업을 통해 종단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족중심의 태고종 장점을 확실히 살리고, 사회참여 역량까지 갖춘다면 2~3년 내 종단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 새해 태고종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먼저 종정 스님이 주석하는 순천 선암

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설립한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제2캠퍼스 조성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도 올 3월 시험방송과 9월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까. 어려운

선암사 총림 확립... '인간성회복 법회' 계획 전승관·위성방송 통해 미래지향 역량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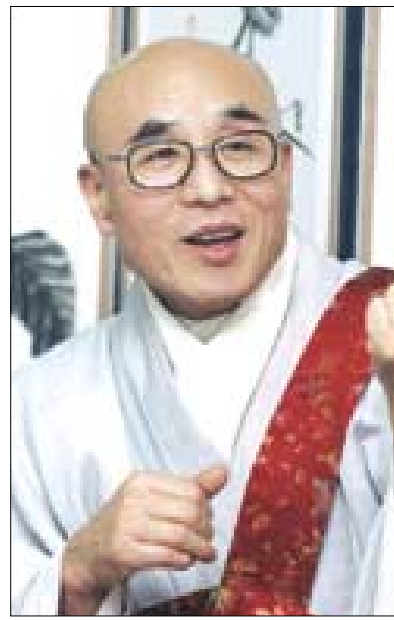
사가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총림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기존의 선원 강원뿐 아니라 울원을 갖춰 각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속 사찰의 연 1회 선암사 순례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 올해 완료해야 할 굵직한 불사들이 많은데요. 추진상황은 어떤지요.

-한국불교 전승관 건립불사는 올 연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 60억원

상황에서 원장의 소임을 맡아 3년만에 태고종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내와 하심,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종단이 발전의 토대를 이룬 것은 비단 총무원장 이하 집행부가 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1954년 불교법난이후 힘겹게 살아온 태고종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종단 미래를 위



운산 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젊은 사람들의 종단참여를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키우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새해를 맞아 당부할 말은?

-세계 평화를 가르쳐야 할 종교가 인류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일 수록 불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태고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항상 종단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를 인식해달라는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구습을 탈피, 새로운 차원의 종단 건설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태고종도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적극적으로 종단불사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신도운동 50주년 맞아 기념사업 알차게 준비할터

인터뷰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조계종 신도운동 50주년을 맞는 2005년,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신도운동 50돌을 맞아 올해는 소통과 나눔, 참여를 사업치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백창기 회장을 1월 4일 만나 중앙신도회 50주년 기념사업 계획과 새해 포부를 들었다.

▲ 통합신도회 원년인데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통합신도회 역량 배가,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21세기 사회 발전의 주역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통합신도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육성, 관리 체계화, 사회일반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연대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수행과 교육이라는 두 중심축을 뒷받침하는 조직 시스템 구축 역시 신도운동의 새 반세기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조계종 50년 신도운동의 위상을 재점검하여, 중앙과 지역 조직을 비롯한 신도조직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도운동 50년 기념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50년 기념행사로 '불교타임캡슐' '50년 활동 사진전' '학술세미나' 등을 교류사업으로 '남북불교도평신도대회' '국토철도순례대행진' 등을 열어 통일에 대한 비전과 문화적 교류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웃종교와의 연대활동을 위해 '가족교환 홈스테이' '공동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도회관 건립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 건물을 짓는 쪽이었으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서 현재 신도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신도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신도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회관과 더불어 신도들을 위



한 문화센터, 연수원 운영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관을 건립하지 않게 된다면 그 부지에는 연수원을, 건립 기금은 신도회 발전기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 종교회합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지난해 불교를 터서 기반을 마련한 이웃종교와의 연대사업은 홈스테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 종교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불교와 가톨릭 종교인의 집에서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연대 공동캠페인도 벌여 종교회합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중앙신도회는 승단을 외호하면서 신도 개인의 수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수행공동체 건설에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지연 기자

공동체문화 형성 역점 남북평신도대회 등 계획 이웃종교와 연대 노력

종단협 19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5일 이시간담회를 갖고, 1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코로 했다.

불교계 지도자 130여명을 비롯 정관계인사 50명 종단 주요단체 인사 20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할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동남아시아



태고종은 1월 5일 서울 봉원사에서 500여 대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지진해일피해와 관련해 세계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태고, 관음, 총화, 보문, 조동, 미륵, 여래종 등 불교계 종단들이 올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희망찬 첫걸음을 시작한다. 원효종은 11일 오후 2시 경주불국사문화회관, 13일에는 총화종이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 총무원, 법상종 오전 10시 신축 광택 총무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관음종은 포항 약사원에서 14일 오후 1시, 총지종 26일 오전 11시 서울 총무원, 연불종과 삼문종은 설날인 2월 9일, 보문종은 2월내에 신년하례법회를 열 계획이다.

태고종(5일) 조동·미륵·여래종(6일) 분원종(7일) 원효종(8일)은 각각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원우·강유신 기자

천태종 교원·학생회 14~17일 동계수련회

천태종(총무원장 운택)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교원불자연합회 및 천태학생회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제16회 전국교원불자연합회 동계수련법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구인사 관성당에서 초·중·고·대학 교원(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포함)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전국 천태종 사찰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3) 420-7399

또 제39회 천태학생회 동계수련법회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참가회비는 5천원이다. 문의 (043) 420-7310 김원우 기자

진각종도 템플스테이 22~23일 탑주심인당

진각종의 수행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와 포교부가 주최하는 템플스테이가 1월 22~23일 서울 탑주심인당에서 열린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진각종 템플스테이는 진각종 안내, 다도체련, 발우공양, 계명정진, 전통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각종은 탑주심인당에서 1년동안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일반 불자를 비롯해 진각종 신교도, 청년회, 학생회, 외국인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02) 913-0751 김원우 기자

에너지 36.4⁴ 고유가시대 연료절감은 필수! 이제 연료비 걱정은 끝



에너지 절약 콘트롤시스템 JAC 1001 1

- ◇ 연료비 절감율
최저 36.4% ~ 최고 45%(이전 연료비 지출비 기준 대비)
- ◇ 절감기 용도
 - 사찰
 - 일반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 오피스텔)
 - 식당, 상가, 병원, 산후조리원
 - 숙박업소
 -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기숙사)
 -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모두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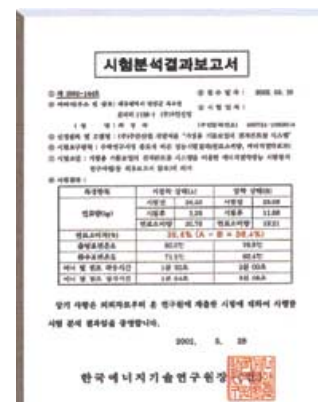
◇ 연간(6개월 기준) 난방연료비

연료비(1개월)	최저(30%)	최고(45%)	연간절약금액(평균)
15만원	45,000원	52,500원	315,000원
30만원	90,000원	105,000원	630,000원
40만원	135,000원	157,500원	945,000원
60만원	180,000원	210,000원	1,260,000원
75만원	225,000원	262,500원	1,575,000원
90만원	270,000원	315,000원	1,890,000원
110만원	330,000원	385,000원	2,310,000원

전국 지역 대리점 모집

◇ 에너지 36.4⁴ 설치시 특·장점

- 에너지 36.4를 설치시 난방비를 기존 사용량에서 약 30%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보일러 기술과 설비기술 사이의 틈새기술로써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기존 에너지 절약 아이템보다 상당히 저렴한.
- 설치 후 조작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설치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한 겨울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 기름보일러, 심아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터장식)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변경할 없이 외부에 전자콘트롤 시스템 설치만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보일러 가동시간의 감소로 보일러 수명연장.
- 반영구적인 수명.
- 사용이 편리하여 이동설치가 용이(이사 또는 보일러 교체시)
- 바닥온도 균배로 실내 쾌적도 향상(이온편차 최소화)



소자본 창업 주안이 책임집니다

에너지의 혁명 36.4%
주안산업은 정부공인검증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검증을 거친 보일러 에너지 절약 전자 콘트롤시스템입니다. 보일러에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치사찰 : 해인사 문수암, 백련암, 청량사, 문경봉암사, 서울 한성포교원 등.

주안산업 www.ejoan.com

대리점 문의: 본사 TEL 053)614-1300~1 서울·경기 TEL 031)907-7093 H.P 019-9205-6337